

## 남양호, 삼교호 및 아산호의 담수조류 및 어류 모니터링 및 제언

정상옥, 전형주, 김경환, 김치홍, 홍관의, 김종화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생태연구소

경기도 및 충청남도 수계의 하류에 위치한 남양호, 삼교호 및 아산호의 담수조류 및 어류 추이 조사가 2005년도 4월, 6월 및 8월에 실시되었다. 담수조류는 Utermöhl 법(1958)을 이용하였고, 어류 조사는 투망, 자망 및 삼각망을 이용하였다.

남세균 밀도를 기반으로 환경부에서 1997년부터 실시한 조류예보제에 따르면, 6월의 남양호에선 경보, 8월의 삼교호엔 주의보, 6월의 아산호도 주의보 수준에 거의 도달하여 3개호의 남세균 우점 및 번성이 관찰되었다. 문제점 또는 향후 개선 방안을 위한 관찰 결과는 (1) 종 또는 분류단위(taxon)의 특성에 따라 세포간 구별이 불명확한 경우, 조류예보제의 적용법 및 보완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고배율(10x60)을 이용한 Utermöhl 법 아래서도 남세균 분류단위에 따라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관찰되었고, (2) 고농도의 입자상 물질이 많은 시료의 경우, 현미경 검경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이었다.

어류 분석 결과 (1) 외래종인 베스, 블루길, 떡붕어, (2) 잉어, 붕어, (3) 자원 방류 대상종인 동자개 등의 출현 비율이 높아 종다양도가 낮은 편이었다. 특히 생체량으로는 잉어, 붕어, 떡베스 및 붕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양호, 삼교호 및 아산호의 담수조류 및 어류 분석 결과에 의한 추이는 수계 하류에 위치한 호소의 경우, 몇 종 또는 분류단위에 의한 남세균 및 어류 우점 및 번성에 대한 관리 방안 연구가 장기적으로 건전한 생태계 회복 또는 조성 측면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질 필요성 및 남세균 밀도에 의한 조류예보제의 애로사항 개선 방법 논의를 제기하였다.